

중국, PVC 반덤핑 판정으로 “희색”

수익성 개선 뚜렷 ... 타이완 · 미국 · 한국 · 일본 · 러시아산 수입규제

중국 PVC 생산기업들이 2003년 9월29일 PVC 반덤핑 항소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타이완을 비롯해 미국, 한국, 일본 및 러시아산 PVC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수입 PVC에 최소 10%의 관세하게 되며 이에 따라 중국 내수가격이 5-1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전 대외경제무역부(Ministry of Foreign Trade & Economic Cooperation)가 PVC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현 상무부가 2003년 5월 예비 판정을 내리면서 4개 PVC 생산기업들의 수익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Beihing No.2 Chemical은 2003년 상반기 순수익이 전년동기대비 102.0%, Hebei Cangzhou Chemical Industry Group은 92.4% 증가했다. Shanghai Chlor-alkali Chemical은 2002년 수익실적이 저조해 2003년 상반기 순수익이 전년동기대비 무려 10107.7% 증가했다.

Shanghai Chlor-alkali Chemical은 과거 7년 동안 임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나 2003년에는 PVC 반덤핑 규제 로 임금을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Jinhua Chemical Group은 2002년 상반기 손실 7481만원을 기록했으나 2003년 상반기에는 5300만원으로 감소했다.

Shanghai Chlor-alkali Chemical, Hebei Cangzhou Chemical Industry Group, Beijing No.2 Chemical, Jinhua Chemical Group 및 Tianjin Dagu Chemical 등 중국의 5대 메이저 PVC 생산기업들은 중국 PVC 시장보호 명목 아래 2002년 3월1일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및 타이완을 PVC 반덤핑 혐의로 제소했다.

외국 PVC 생산기업들의 덤핑수출로 인해 중국 PVC 가격이 급락하고 중국의 PVC 생산기업 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Shanghai Chlor-alkali Chemical의 PVC 생산능력은 32만톤에 달하며 Hebei Cangzhou Chemical Industry Group은 29만톤, Tianjin Dagu Chemical은 30만톤, Jinhua Chemical Group은 13만톤, Beijing No.2 Chemical은 16만톤에 달한다.

중국 5대 PVC 생산기업들은 2002년 PVC 생산량 부문에서 각각 1위, 2위, 3위, 6위 및 7위를 기록해 중국 전체 생산량의 33%를 차지했다.

2002년 중국 PVC 생산량 4위를 기록한 Qilu Petrochemical은 반덤핑으로 인한 소비감소를 우려해 PVC 반덤핑 제소에 합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과의 합작기업 Tianjin LG Dagu는 2002년 PVC 생산량 15위를 기록했다.

<Chemical Journal 2003/12/03>